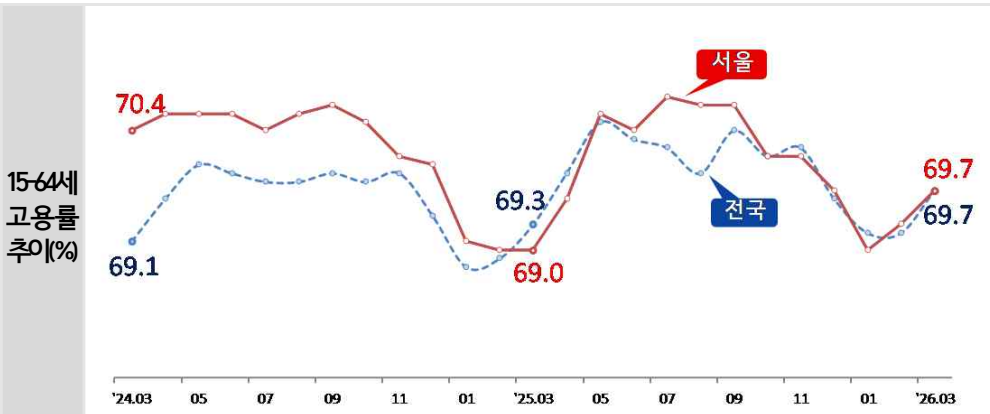


(자료: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)

- ▶ 고용률(61.3%, +0.8%p)과 15~64세 고용률(69.7%, +0.7%p) 모두 상승
- ▶ 취업자(+7만명)는 증가, 실업자(-6만 4천명)는 감소
- ▶ 비경제활동인구는 8천명(-0.2%) 감소
- ▶ <sup>(1분기)</sup>청년고용률(46.2%, -2.0%p)은 8분기 연속 하락, 비경제활동인구(+2만 5천명) 증가

(전년동월대비)

	취업자 증가	취업자 감소
성별	여성(+9만 9천명)	남성(-2만 9천명)
연령	30대(+3만 1천명), 40대(+2천명), 50대(+3만 5천명), 60세이상(+5만 7천명)	청년(-5만 5천명)
산업	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업(+8만 2천명), 도소매·숙박음식업(+2만 4천명), 제조업(+2만 1천명)	전기·운수·통신·금융(-5만 4천명), 건설업(-5천명)
종사상지위	자영업자(+4만 2천명), 임시근로자(+2만 3천명), 상용근로자(+1만 3천명), 일용근로자(+2천명) 고용원 유 자영업자: +1만 6천명 고용원 무 자영업자: +2만 6천명	무급가족종사자(-1만명)
직업	관리자·전문가(+4만 8천명), 단순종사자(+2만 8천명)	기능원(-4천명), 사무종사자(-1천명), 서비스·판매 종사자(-1천명), 기계조작·조립종사자(-1천명)
취업시간	36시간 이상(+3만 3천명), 36시간 미만(+1만 2천명), 일시휴직자(+2만 4천명)	



청년	(천명)	취업자수															
		'23	'24	'25.3	4	5	6	7	8	9	10	11	12	'26.1	2	3	
		891	862	799	808	832	825	827	802	796	781	778	773	736	742	745	
		증감	-5	-29	-88	-74	-26	-15	-17	-62	-44	-61	-52	-50	-63	-55	-55

## 전국

## 서울

(전년동월대비)

전체 인구 (주민등록)	5,110만 1천명 · 8만 2천명 감소(0.2%↓)	930만 4천명 (전국의 18.2%) · 3만 1천명 감소(0.3%↓)
15세이상 인구	4,595만명 · 24만 1천명 증가(0.5%↑)	845만 4천명 (전국의 18.4%) · 2천명 감소(0.0%↓)
경제활동인구	2,967만 9천명 · 17만 2천명 증가(0.6%↑) - 경제활동참가율 64.6%(0.0%p↑) (월) 청년층 47.1%(1.0%p↓) (분기) 청년층 46.9%(0.9%p↓)	536만 7천명 (전국의 18.1%) · 5천명 증가(0.1%↑) - 경제활동참가율 63.5%(0.1%p↑) (분기) 청년층 49.8%(3.1%p↓)
취업자	2,879만 5천명 · 20만 6천명 증가(0.7%↑) - 고용률 62.7%(0.2%p↑) - 15~64세 고용률 69.7%(0.4%p↑) (월) 청년층 43.6%(0.9%p↓) (분기) 청년층 43.5%(1.0%p↓)	518만 6천명 (전국의 18.0%) · 7만명 증가(1.4%↑) - 고용률 61.3%(0.8%p↑) - 15~64세 고용률 69.7%(0.7%p↑) (분기) 청년층 46.2%(2.0%p↓)
실업자	88만 4천명 · 3만 5천명 감소(3.8%↓) - 실업률 3.0%(0.1%p↓) (월) 청년층 7.6%(0.1%p↑) (분기) 청년층 7.4%(0.6%p↑)	18만 1천명 (전국의 20.5%) · 6만 4천명 감소(26.1%↓) - 실업률 3.4%(1.2%p↓) (분기) 청년층 7.4%(1.5%p↓)
비경제활동인구	1,627만 1천명 · 6만 9천명 증가(0.4%↑)	308만 7천명 (전국의 19.0%) · 8천명 감소(0.2%↓)

- 경제활동참가율(%)  
경기(65.4) > 인천(65.1) > 대전(63.6) > 서울(63.5) > 광주(63.1) > 울산(62.2) > 대구(59.9) = 부산(59.9)
- 15~64세 고용률(%)  
경기(69.9) > 서울(69.7) > 인천(69.3) > 부산(68.6) > 대전(67.4) = 울산(67.4) > 광주(67.2) > 대구(65.6)
- 실업률(%)  
경기(3.5) > 서울(3.4) = 대전(3.4) > 대구(3.3) > 인천(3.1) > 울산(3.0) = 광주(3.0) > 부산(2.5)
- 1분기 청년(15-29세) 실업률(%)  
대구(8.6) > 경기(8.1) > 대전(7.7) = 울산(7.7) > 서울(7.4) > 인천(7.3) > 광주(7.0) > 부산(4.5)

총괄

- 고용률은 61.3%(+0.8%p)로 2개월 연속 상승했고, 전국(62.7%, +0.2%p)을 1.4%p 하회  
- 15~64세 고용률은 69.7%로 0.7%p 상승했으나, 1분기 청년 고용률은 46.2%(-2.0%p)로 8분기 연속 하락
- 실업률은 3.4%(-1.2%p)로 9개월 연속 하락했고, 전국 실업률(3.0%, -0.1%p)을 0.4%p 상회

취업자수

취업자(518만 6천명, +7만명) 증가,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업(+8만 2천명)과 여성(+9만 9천명) 중심의 증가 지속

- \* 증감(전년동월비, 천명): ('25.3)-108 (4)-72 (5)4 (6)-22 (7)28 (8)29 (9)9 (10)-20 (11)8 (12)-30 ('26.1)-17 (2)22 (3)70
- \* (전국) 취업자수(+20만 6천명)는 직접일자리 사업 효과와 돌봄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보건복지업 중심의 증가  
도소매는 감소 전환했고, 건설, 제조, 전문·과학서비스업은 감소를 지속
- \* 증감(전년동월비, 천명): ('25.3)193 (4)194 (5)245 (6)183 (7)171 (8)166 (9)312 (10)193 (11)225 (12)168 ('26.1)108 (2)234 (3)206

산업별

-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업, 도소매·숙박음식점업과 제조업은 증가폭 확대
- 전기·운수·통신·금융업과 건설업은 감소 지속

- ▶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업(+8만 2천명, +3.6%)은 돌봄·복지 수요 증가, 직접일자리 사업 등 영향으로 증가폭 확대  
\* 증감(전년동월비, 천명): ('25.3)75 (4)66 (5)105 (6)95 (7)132 (8)102 (9)71 (10)60 (11)62 (12)36 ('26.1)27 (2)77 (3)82
- ▶ 도소매·숙박음식점업(+2만 4천명, +2.1%)은 전월대비 소비심리지수 하락(-5.1p)에도 불구하고 7개월 연속 증가  
\* 증감(전년동월비, 천명): ('25.3)-35 (4)-3 (5)4 (6)1 (7)-16 (8)-2 (9)21 (10)3 (11)2 (12)13 ('26.1)35 (2)19 (3)24
- ※ 소비자심리지수(CCSI): ('25.3)93.2 (4)93.6 (5)101.7 (6)108.6 (7)110.7 (8)111.2 (9)110.0 (10)109.6 (11)112.3 (12)109.8 ('25.1)110.8 (2)112.1 (3)107.0
- ▶ 제조업(+2만 1천명, +5.6%)은 '24.12월~'25.6월 큰 폭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로 4개월 연속 증가하나 40만명을 하회  
\* 증감(전년동월비, 천명): ('25.3)-131 (4)-145 (5)-129 (6)-117 (7)-82 (8)-45 (9)-19 (10)-10 (11)-12 (12)1 ('26.1)13 (2)13 (3)21
- ▶ 전기·운수·통신·금융(-5만 4천명, -5.3%)은 정보통신분야 기채용 영향 등으로 8개월 연속 감소  
\* 증감(전년동월비, 천명): ('25.3)34 (4)50 (5)34 (6)10 (7)9 (8)-15 (9)-36 (10)-32 (11)-8 (12)-41 ('26.1)-62 (2)-69 (3)-54
- ▶ 건설업(-5천명, -1.8%)은 건설경기 부진 지속으로 17개월 연속 감소  
\* 증감(전년동월비, 천명): ('25.3)-49 (4)-35 (5)-6 (6)-5 (7)-9 (8)-8 (9)-25 (10)-38 (11)-34 (12)-36 ('26.1)-29 (2)-18 (3)-5
- \* (전국) 보건·복지(+29만 4천명), 운수·창고(+7만 5천명), 예술·스포츠(+4만 4천명)등의 증가 지속, 정보통신(+3천명)은 증가 전환  
공공행정(-7만 7천명), 제조(-4만 2천명)등은 감소폭 확대, 도·소매(-1만 8천명)는 감소 전환, 건설, 전문과학은 감소폭 축소

연령별

- 청년층(-5만 5천명)은 23개월 연속 감소했고, 20~24세(-3만 3천)에서 큰 감소
- 60세 이상(+5만 7천명), 50대(+3만 5천명), 30대(+3만 1천명)는 증가폭 확대, 40대(+2천명)는 증가 전환
- \* (전국) 청년층(-14만 7천명)은 41개월 연속 감소 지속, 40대(-5천명)는 1개월 만에 감소로 재전환  
60세 이상(+24만 2천명), 30대(+11만 2천명), 50대(+5천명)는 증가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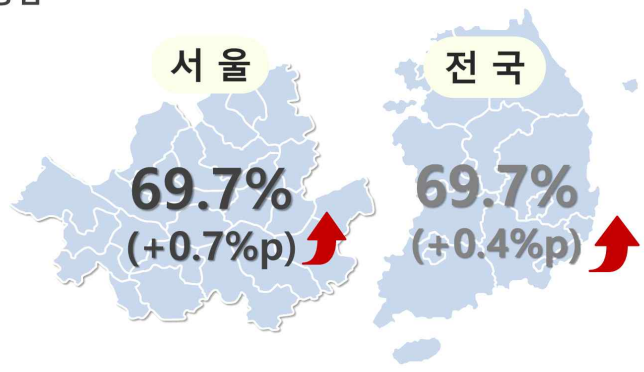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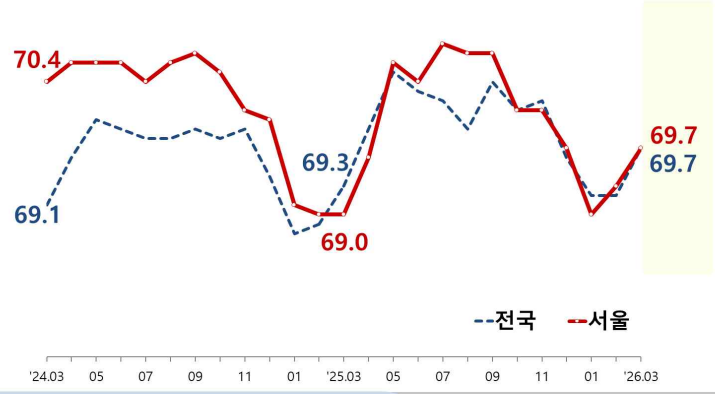
종사상  
지위

- 상용직(+1만 3천명)과 임시직(+2만 3천명)은 증가 전환, 일용직(+2천명)은 2개월 연속 증가
- 고용원有(+1만 6천명), 고용원無(+2만 6천명) 모두 증가하며 자영업자(+4만 2천명) 증가
- 무급가족종사자(-1만명)는 3개월 연속 감소
- \* (전국) 상용직(+14만명)과 일용직(+3만 2천명)은 증가 지속하고, 자영업자(+10만 5천명)는 고용원有 자영업자(+10만 5천명) 위주의 증가  
임시직(-5만 9천명)은 감소 전환, 무급가족종사자(-1만 2천명)는 감소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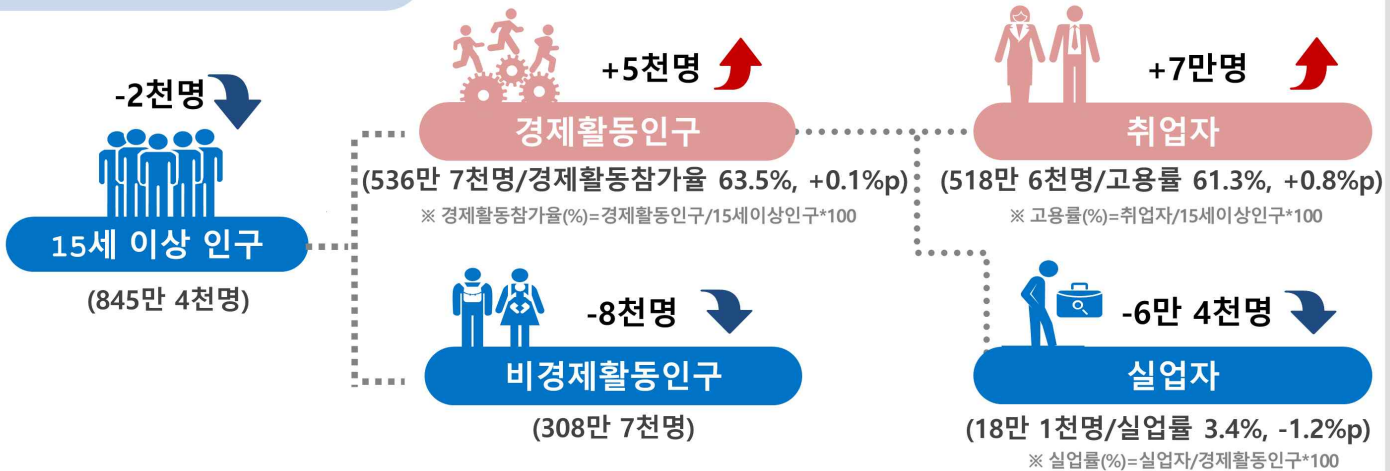


# 서울지역 고용동향

고용률(15~64세) OECD기준 ※ 전년동월대비 증감



경제활동인구 구조 ※ 15세 이상 기준, 전년동월대비 증감



취업자수 증감 ※ 전년동월대비 증감(률)

